

제목: "고난 가운데 얻는 축복"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9-26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보여주며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슬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길이 있음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알게 합니다. 우리도 살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축복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축복을 얻습니까?

1. _____해야 합니다.
2. _____ 합니다.
3. _____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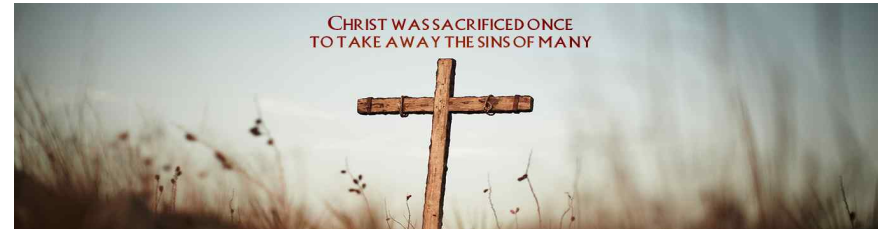
|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 |
|------------------------------|-------------------------------|
|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
| Silk Wave 선교회 |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
|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
|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 니카라과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
| 임철현/임윤실 선교사 | 한국(제주) 탈북자, 고려인 자녀 사역 |
| 김종현/김유경 선교사 | 선교사 파송 및 교회를 떠난 청년 사역(한국) |
| 제이넵/젠기즈 사역자 | 터어키 현지인으로서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

| 지난 주 헌금 | |
|---------|--|
| 십일조 | |
| 주일 | |
| 감사 | |
| 합계 | |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예레미야 11장 4절)
 "Let us obey our God" (Hebrews 12: 1-2)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r: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2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amentation 3: 19-26 구약 1146 페이지 Presider
- 말씀 "고난 가운데 얻는 축복" 김성민 목사
 Message Rev. Kim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같이
 Praise and Prayer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문화 충격)

폴타임으로 목회를 할 때에는 교회에만 있었다. 일주일 내내 교회와 집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체와 집을 방문하는 일 외에는 교회와 관련된 일과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나의 일상이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살다가보니 세상이 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지난 40년 동안 나는 한국 사람들만 만난 것이다. 1세와 2세를 합쳐서 거의 한국인들이었다.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 40여년을 생활하고 있었으니 나의 생활은 미국이었지만 한국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한지 몇 년을 돌아보니 나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 갈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체성의 문제가 있었지만 문화 갈등이 더 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할 텐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하루 종일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친절하게 답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다.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 만나왔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말씀 공부에 헌신하며 선교에 앞장섰는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많이 부끄러웠다. 이제 새로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 한 나라에서 20년을 사역하다가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하는 선교사들의 생활은 어떻게?

결국 우리 모두는 이민자들이 아닌가?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잘 정착을 하고 산다고 하여도 가야할 곳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많이 모으고 살아간다고 하여도 나그네 인생임을 알지 못한다며 여태껏 살아온 생활이 전부가 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여태껏 살아 온 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정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산다면 천국은 없다. 하지만 천국이 있음을 깨달은 후에는 새로운 지역에 곧 적응해서 여기에서도 살고 저기에서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된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살아 있는 생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세상에서는 한 곳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영적인 생활은 한곳에 정착할 수 없다. 그것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곳으로 이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생활은 여기나 저기나 벌써 하늘나라이고 하나님께 순종인 것이다.

하나님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119편 18-19절)이라는 시인의 고백을 들려주신다. 우리에게 정착이라는 것은 없다. 천국에서의 정착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정을 붙이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적응해야 한다. 그런데 세상에 적응이 아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적응이다.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는 위하여 만드신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역자로서 세상에서도 일을 하며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많다. 시야가 너무 좁았다는 것과 생각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 하나다.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여행 중에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이슬람 지역에 개척교회를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현지인 목회자들의 도움이 잘 연결

김인선 선교사: 학교사역과 사무실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임철현, 임윤실 선교사: 1월 한글학교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김중현, 김유경 선교사: 선교 동원사역 및 한국 청년사역 (교회를 떠난)

제이넵, 젠기즈 사역자: 터어키 서머나 지역 교회 개척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가능한 분들은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7월호가 준비 되었습니다. 한권씩 가지고 가서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5월 행사

| | | |
|-------|------------|------|
| 목자 훈련 | 6월 25일(주) | 친교 후 |
| 목장 모임 | 6월 25일 주 중 | |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